

# 중동 지역 분쟁 관련 민생안정 모색

# 아동 아토피 예방관리 돕는다

### 전주시, 유가 상승 따른 점검 회의 열고 대책 마련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민생경제를 안정 시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는 12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중동 지역 분쟁 관련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유가 상승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동욱 부시장과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해 유가·물류비·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시민 생활과 기업 피해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먼저 시는 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활용해 전주 지역 최저가 주유소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고, 전북본부 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나선다. 또 버스와 화물 등 운송업계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기업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상시 접수하고, 금융·물류 리스크 해소와 내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및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와 농가 경영 안정,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 체감 물가 관리도 강화되면서 시는 매주 생필품과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폭리 및 위조 상품 등 불공정 거래 단속 △주요 축제 시기 바가지요금 점검 등 민생 현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물가 도미노 현상을 예방



전주시는 12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중동 지역 분쟁 관련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유가 상승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다.

동시에 시는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 공무원 차량 운행 요일제 등 에너지 절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제안정방안 △에너지 대응반 △교통 대

응반 △복지 지원반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TF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윤동욱 부시장은 "국제 정세 불안이 유가와 물가, 기업 활동 등 민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경기전·전라감영지에 단청 입힌다

### 전통안료 사용 복원 공사 착수

전주시 대표 문화유산인 경기전과 전라감영지가 단청을 칠한 옛 모습을 되찾는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경기전 정전과 전라감영지 내삼문에 대해 전통안료를 사용한 단청 복원 공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청은 청·적·황·백·흑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목조 건축물에 여러 가지 색으로 무늬를 그리는 장식 기법으로, 단청공사는 단순한 전통 건축물을 장식하는 조형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햇빛과 비바람, 병충해로부터 목재를 보호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능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경기전 정전 단청의 경우 노후화 및 바리 현상 등으로 훼손된 상태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증자료가 남아 있는 1872년 시점에서의 복원이 결정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는 경기전 정전 단청 복원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단청 문양은 위계에 따라 3가지 형식으로 나눠 정전과 배위청은 금모로 단청, 익랑과 율랑, 정전 배면 처마부는 모로단청, 정전 측면 상부 풍관 안



전주시는 이달부터 경기전 정전과 전라감영지 내삼문에 대해 전통안료를 사용한 단청 복원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쪽은 굵기 및 가칠단청으로 구분해 단청을 입힐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복원한 전라감영지 건물에 대해서도 올해 내삼문 모로단청부터 순차적으로 건물별 단청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감영지 건물의 경우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 백골집으로 처마 등 공방식으로 나눠 정전과 배위청은 금모로 단청, 익랑과 율랑, 정전 배면 처마부는 모로단청, 정전 측면 상부 풍관 안

위에 단청을 입히기로 결정했다.

시는 타지역 감영 및 지역 내 타 건물의 단청 사례를 참고해 단청 문양 구성을 구체화해 전라감영 전체 복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이에 단청 공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공장은 "달린 경기전과 전라감영지 전통단청 공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위엄을 높이고,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역사 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전주시가 대학생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26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지 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6학기 이내), 그리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청년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 타기관으로부터 이미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교육·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변동 사항 포함) △재학·휴학·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보건소, 보습제·의료비 등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아토피 피부부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토피피부부염'은 영유아 및 아동에게 발생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과 피부 손상으로 인해 수면 부족과 학습 집중도 저하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경우 피부 장벽이 약해 증상이 반복되기 쉬운 만큼 조기 관리와 지속적인 보습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습제 및 의료비를 지원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습제는 연간 6개를 지원하며, 의료비는 연간 1인당 최대 50만 원(일 최대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보습제 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아토피피부부염(1.20코드)을 진단받은 아동으로, 보건소 최초 등록 후 매년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며, 생애 1회 등록 가능하다. 신청은 전주시보건소 또는 덕진보건소 모자건강팀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올해 아토피 보습제 선정 기준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보습제 선정 시 권장·주의 성분뿐 아니라 계절별 피부 특성에 대한 적합한 제형 구분 등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여 아동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9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토피피부부염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으로, 질환 완화 예방은 물론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아토피피부부염은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토피예방관리사업 등록 및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에 따라 전주시보건소(완산구, 063-281-6282) 또는 덕진보건소(덕진구, 063-281-882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생 모집

###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안정적 농촌 정착 위해 20일까지 신청 접수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귀농·귀촌인과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2026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1기)'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 경험이 부족한 신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 기술과 농업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4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7회(26시간 과정)에 걸쳐 운영되며,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선도 농가 현장 등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귀농·귀촌 정책 이해 △친환경 토양관리 △작물배배 기초 △농기계 취급 및 안전사용 교육 △선도농가 현장견학 △농지법 및 토지거래 기본상식 등 신규농업인이 알아야 할 핵심 기초 과정으로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신규·초보 농업인과 귀농인 및 귀농 예정자로, 모집 인원은 약 20명 내외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전주시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교육생은 오는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시는 교육 수료 후에는 설문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후속 교육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이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